



개구리의 출근시간이 당겨지고 있다!

-기후변화가 바꾼 우리나라 계절과 24절기!-



기상청

예전에는~
이렇게 덥지
않았는데…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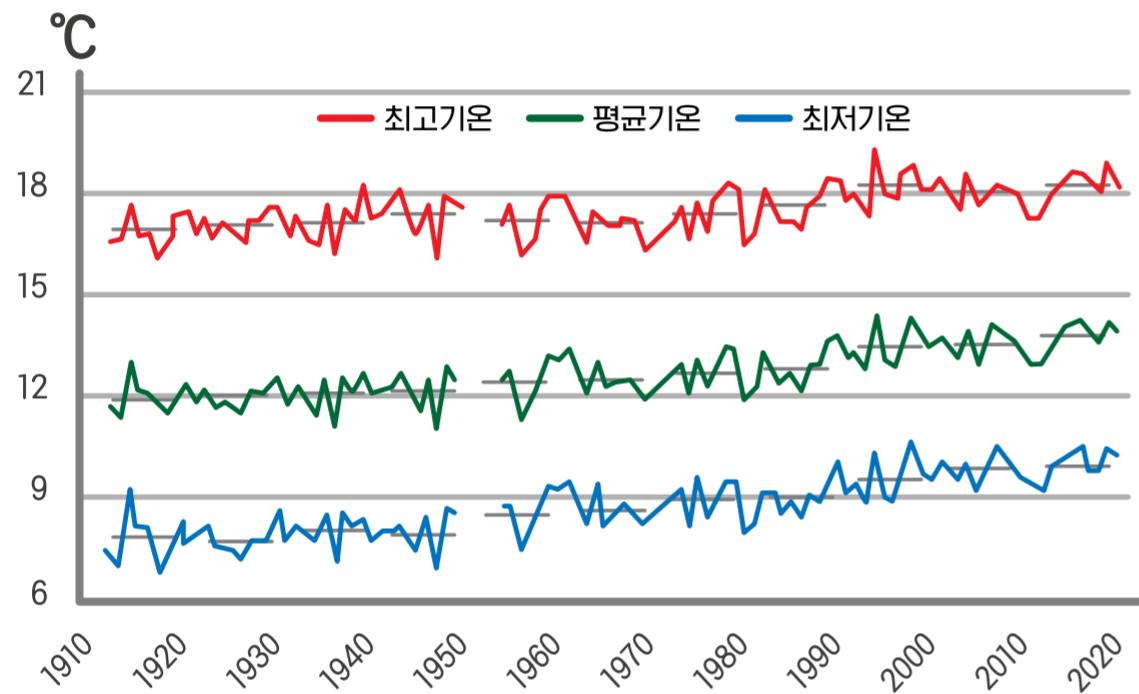
나때는~
이렇게 덥지
않았는데…



~라고 생각하고 있는 당신!!

“그건 기분 탓이 아니야.”

아래 표를 볼까?



| 구분 | 109년 | | 최근 30년 -과거 30년 |
|------|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| 평균 | 변화율(/10년) | |
| 평균기온 | 12.8 | + 0.2 | + 1.6 |
| 최고기온 | 17.5 | + 0.13 | + 1.1 |
| 최저기온 | 8.9 | + 0.24 | + 1.9 |

과거 30년 : 1912~1940년 / 최근 30년 : 1991~2020년

최근 30년은 과거 30년보다
1.6°C나 더 더워졌어.
특히 **최저기온**의
상승이 두드러졌다.

기분탓이 아니~



도시마다 지형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지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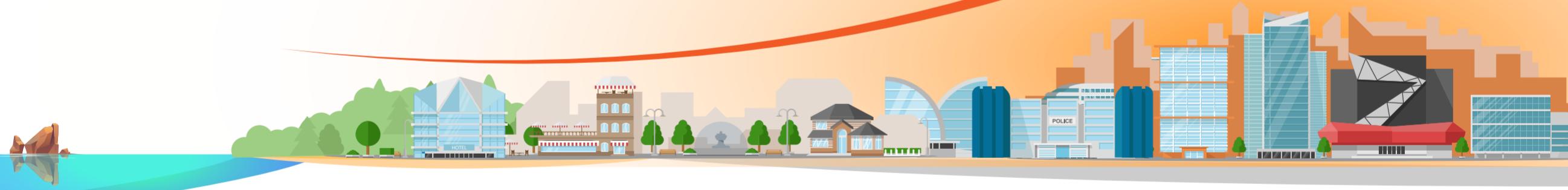


대구와 서울은
 $+2.0^{\circ}\text{C}$, $+1.9^{\circ}\text{C}$ 로
비교적 높게 상승한데 반해,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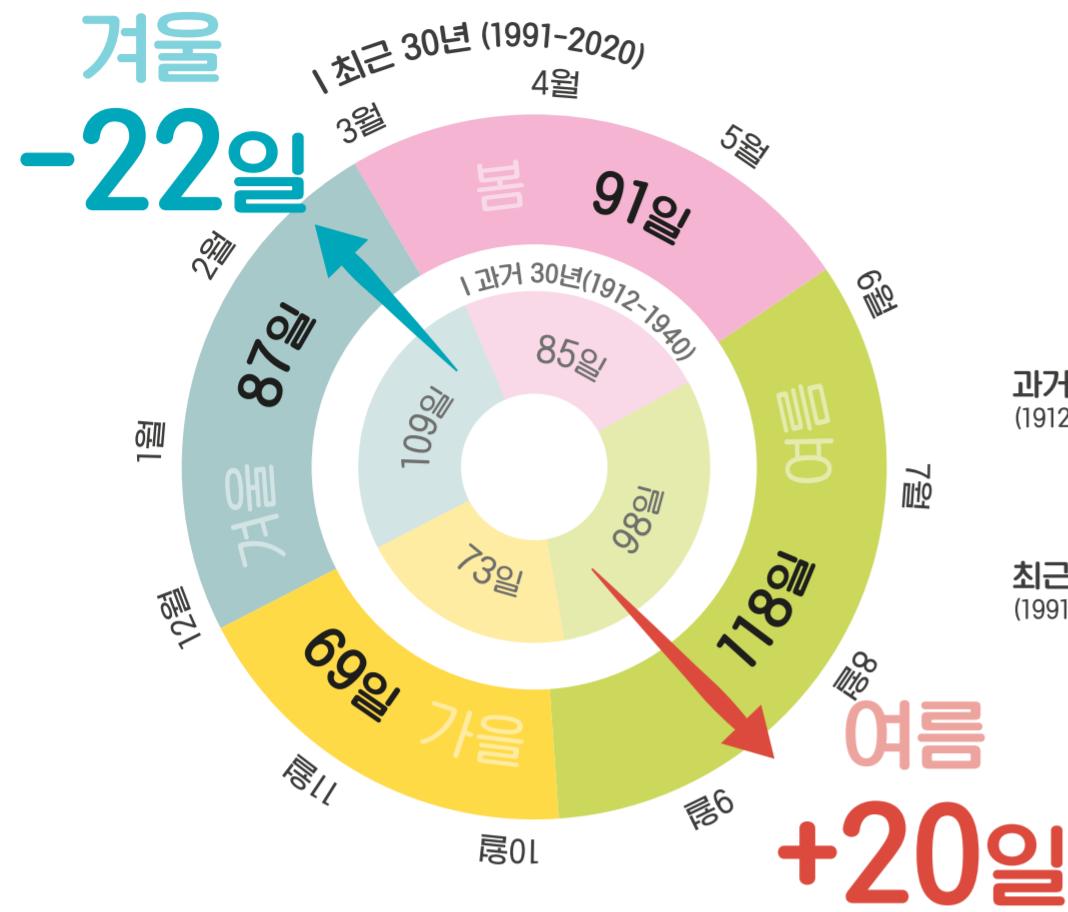
목포는 $+0.8^{\circ}\text{C}$ 상승으로
도시 간 차이를 보였다.

점점 더워지고 있어.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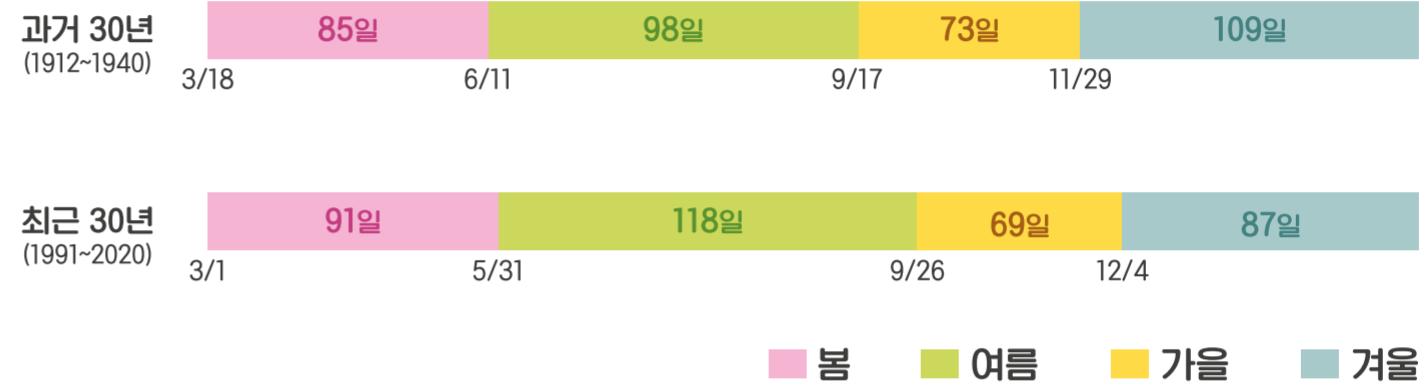


| 연평균기온($^{\circ}\text{C}$) | 서울 | 인천 | 목포 | 대구 | 부산 | 강릉 | 평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과거 30년 | 10.9 | 10.8 | 13.2 | 12.4 | 13.5 | 11.9 | 12.1 |
| 최근 30년 | 12.8 | 12.5 | 14.0 | 14.4 | 15.0 | 13.5 | 13.7 |
| 최근 30년-과거 30년 | +1.9 | +1.7 | +0.8 | +2.0 | +1.5 | +1.6 | +1.6 |

과거 30년 : 1912~1940년 / 최근 30년 : 1991~2020년



< 계절길이 변화 >



■ 봄 ■ 여름 ■ 가을 ■ 겨울

여름
겨울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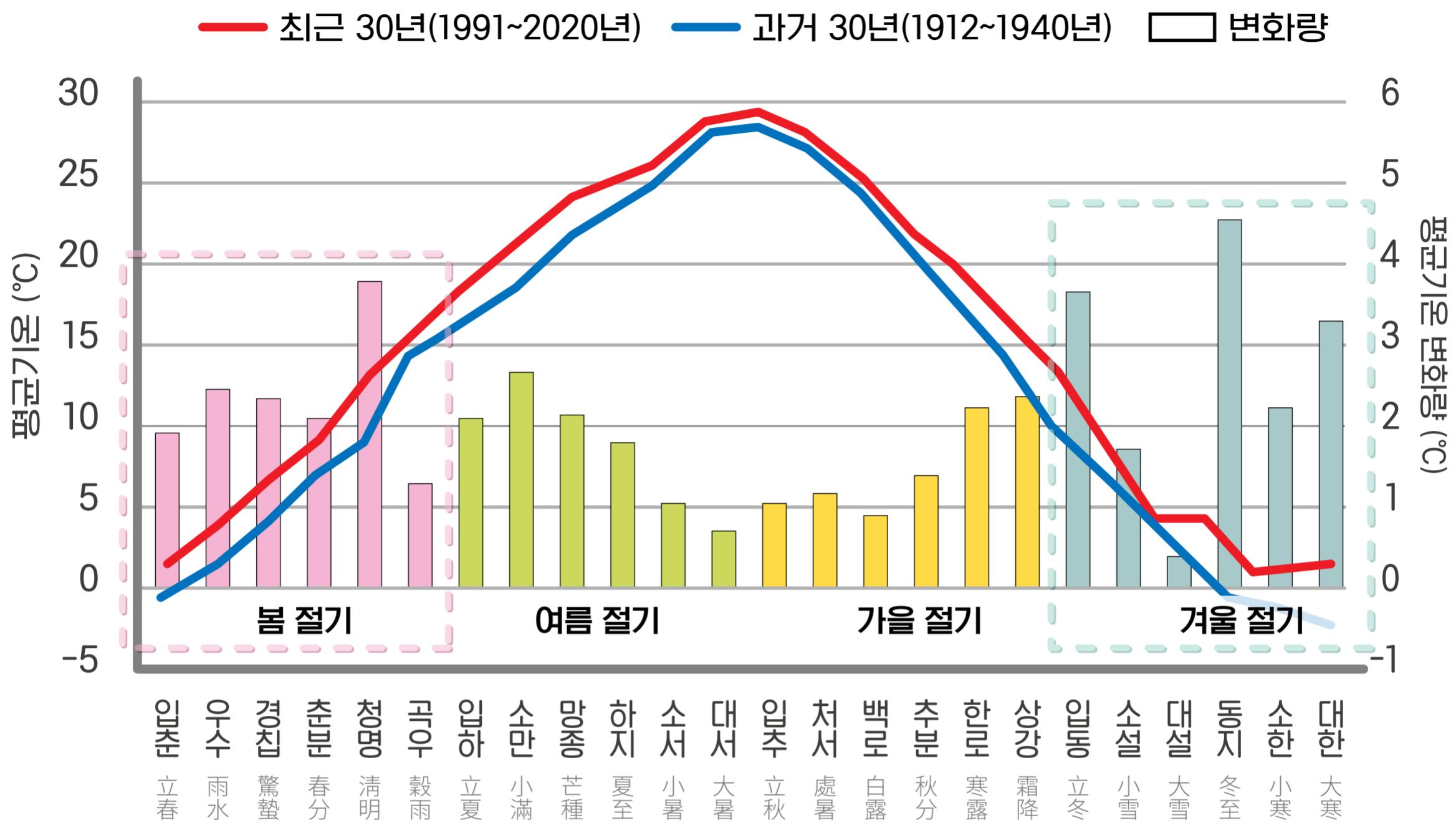


<기후변화과학 시간>

과거 30년에 비해서 최근 30년,
여름은 20일 길어지고,
겨울은 22일 짧아졌으며,

봄과 여름 시작일이
각각 17일, 11일 빨라졌어!

밑줄 짹! 돼지꼬리 팽팽~!



24절기는 과거에 비해,
기온이 $+0.3\text{~}+4.1^{\circ}\text{C}$ 상승하여,
모든 절기에서 영상의 기온을 보였으며,
특히, 겨울과 봄에 해당하는 절기의
기온이 더 높게 올라갔지.



오늘의 속담!

대한이 소한 집에 놀러갔다가 얼어 죽었다?

옛 속담의
놀라움...

헉...



※ 기온상승폭

동지(+4.1°C) > 청명(+3.4°C) > 입동(+3.3°C) > 대한(+3.0°C)

※ 과거30년에서 최근30년으로의 기온변화

대한(-2.1→0.9°C), 소한(-1.2→0.8°C)

겨울 절기만 살펴보면,
‘동지’ 가 모든 절기 중
기온이 가장 많이 상승했고,
가장 큰 추위를 나타내는 절기가
‘대한’에서 **‘소한’**으로 바뀌었어



입하, 여름의 시작

경침, 개구리가 잠에서 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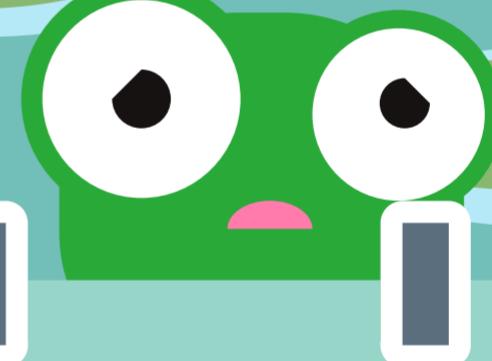
특히 입하는 8일이, 경침은 13일이나
당겨져 버려서

이제 13일이나
빨리 출근해야 한다고…

Z z z

일어나라구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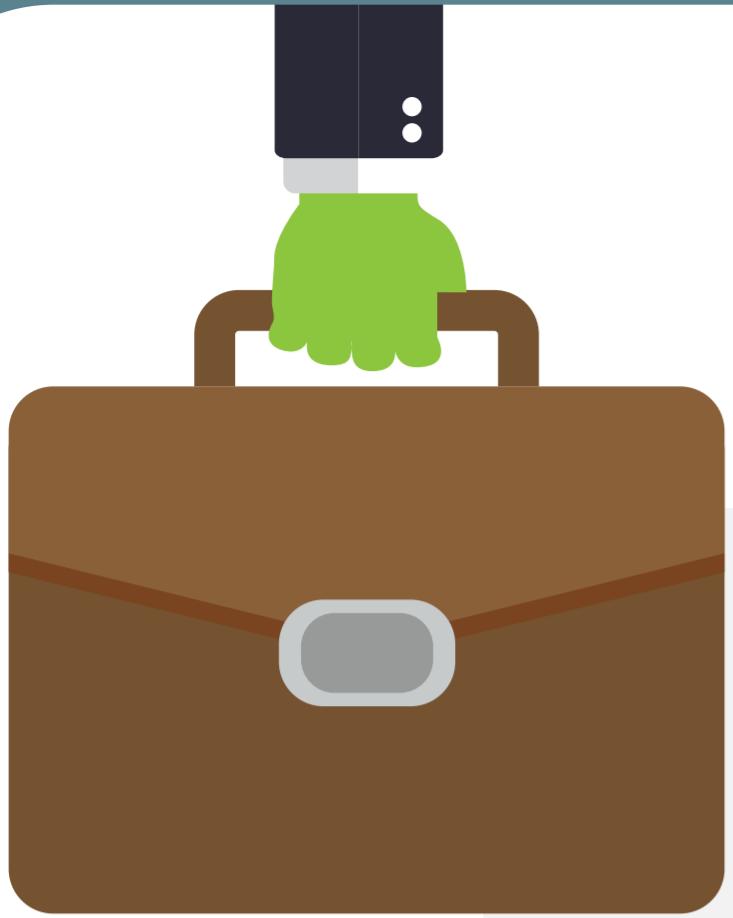
벌써?



출근 임박!!

D-DAY -13





DATA

[출처& 참고자료]

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싶다면

‘기후정보포털 (www.climate.go.kr)
열린마당 > 발간물 > 기후변화 시나리오’에서

‘우리나라 109년(1912~2020년)
기후변화 분석보고서’를 찾아봐



기후변화 정보가
많다구!

